

‘친환경 농업 1번지’ 전남, 저탄소 유기농 확대

1601억원 투입…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47개 사업 추진
자재·토양개량제 등 지원 농가 수익성과 안전성 동시 강화

전국 최대 친환경 농업지역인 전남이 유기농 중심 저탄소 친환경농업 확대에 나선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저탄소·친환경 유기농업 확산과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전남지역 유기농 중심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47개 사업(1601억원)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3만 5704ha(2024년 3만 4294ha)로 1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5664ha)도 전년에 견줘 무려 240%나 급증했다. 전남도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은 지난해 급증하면서 전북(4560ha)을 제치고 전국 1위로 올라섰다. 2024년까지 전남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은 1660ha에 불과했었다. 전남도는 올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늘리는 데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품목을 다양화하고 판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경영 안정을 꾀하면서 안전성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전략을 수립, 추진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유기농업 확대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3만 5000ha·320억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7개소 83억원), 친환경배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친환경 포트육묘 이양기(20대 13억 6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전라품목 육성(320ha)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농가 수익성 개선 등을 돕기 위해 유기농

업자재(1만 6000ha·235억원)과 토양개량제(8만 9000 t 203억원)를 지원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논벼 왕우렁이(3만 1000ha 47억원), 친환경 농업 인증비(1만건 105억원)도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품목을 다양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4곳 25억원), 비가림하우스 시설(3.5ha 11억원),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3곳 15억원),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150곳 17억 5000만원)에 나선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방안으로는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조성에 힘을 쏟는다. 오는 2029년까지 180억원을 들여 해남군 산이정원 내 부지(1ha)에 조성되는 유기농산업복합단지는 지원·가공센터와 스마트팜을 갖춘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기농 중심 저탄소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시기별 출하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 유통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눈길 산책 새벽사이 눈이 내린 2일 오전 광주 동구 푸른길 공원 산책로에서 시민들이 하얗게 눈이 내려앉은 나무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자 해동비 첫 지원

45억200여만원 투입…정부형·광주형 추가 지원

광주시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넓히고 혜택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난자를 해동하는 비용이 처음으로 지원되고,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45억200여만원을 투입해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정부형 지원사업(43억200여만원)과 정부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부부를 위한 ‘광주형 추가 지원사업’(2억원)을 합친 규모다. 기존에는 배아 동결비나 유산 방지제 등만 지원됐으나, 2026년부터는 난임 진단자가 가입력 보존

을 위해 냉동해 둔 난자를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해동 비용을 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연장된다. 지원 사업은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정부형 난임 시술비 지원’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한다.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며, 1회당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원이다.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광주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여성 난임 환자가 대상이며, 연간 최대 4회까지 추가 지원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체외수정(신선배아)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배강숙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과 유효기간 연장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아이 낳기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관광공사, 스마트 관광·마이스 허브 구축

‘신 경영비전’ 선포식 개최…4대 혁신전략·12개 과제 제시

광주관광공사가 ‘스마트 관광·마이스(MICE) 허브’라는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마련했다. 광주관광공사는 최근 비전선포식을 갖고 ‘광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관광·MICE 허브’를 새로운 경영 비전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공사의 미션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사는 비전 달성을 위해 브랜드·콘텐츠 혁신, 스마트관광·MICE 혁신, 조직·성과경영 혁신, 광역관광시대 선도 등 4대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뒷받침할 12개 실행 과제로는 통합 브랜드 이미지(BI) 스토리라인 구축, 5대 컬러 콘텐츠 육

성, 상권·축제 연계 모델 정착 등을 꼽았다. 특히 ‘광주·전남 원 데스티네이션(One Destination) 구축’과 ‘광역·지역 연대 시너지 확대’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켜, 행정통합 시대를 대비한 관광 산업의 구조적 재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캠페인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슬로건은 ‘함께 만드는 통합, 함께 키우는 관광’으로 정했다. 공사는 월평균 10만여 명이 방문하는 김대중컨벤션센터를 통합 홍보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 온라인상에서도 공사 누리집에 ‘행정통합 Q&A’ 팝업창을 띄우고,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카드

뉴스를 배포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 홍보를 펼친다. 아울러 ACE Fair(에이스페어) 등 공사가 주관하는 5대 전시회의 뉴스레터와 누리집을 통해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도 통합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공사는 전남 지역 관광 기관들에 ‘지역관광 활성화 세미나’ 공동 개최를 제안했으며, 김대중센터 내에 ‘광주·전남 통합관광 콤플렉스’를 조성해 양 사·도의 관광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그동안 조직 내부의 진통을 치유하고 안정을 되찾는 것을 넘어,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해야 할 때”라며 “공사의 모든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발맞춰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민이 직접 전기 생산해 수익 창출”

광주시, 에너지 분권 실현…103억원 투입 거점센터 등 지원

광주시가 시민이 에너지 소비자를 넘어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주제로 나서는 ‘광주형 에너지 분권’ 실현에 속도를 낸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45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목표로 총 1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민 체감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우선 생활 속 에너지 전환의 구심점이 될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5곳을 운영한다. 이곳은 주민이 마을 단위의 에너지 절감·생산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공간이다. 협동조합이 공공부지 등에 발전소를 짓는 ‘시민 햇빛발전소’에는 공사비의 최대 50%(2억 원 한도)

를 지원해 에너지를 시민 공유 자산으로 만든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 문턱도 대폭 낮췄다. 단독·공동주택 150곳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며, 아파트 단지별 참여 기준을 기존 20세대에서 10세대로 완화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란다 태양광 설치 시 탄소중립포인트 1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주택과 상가, 공공건물이 혼재된 1160개 구역에 태양광·지열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81억9000만원을 투입, 도시 전체의 에너지 자립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신뢰의 문화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